1. 방문 요양 끝난 후에도 추후에 케어가 안 돼서 불편했던 점.

🡺 **많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로 내서 요양사분들을 더 근무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심.** 시설을 가기 싫으시거나 가기 애매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 서비스는 또 받아야 하니까 🡪 요양사분들과 함께 있는 3~4시간이 끝나고 나서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혹은, 혼자 계셔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따로 돈을 지급해서 추가 관리 받으심(주로 식사가 잘 안되고 뒤처리가 잘 안되시는 분들, 방문요양은 보통 일상생활 지원정도)

2. 방문 요양하면서 불편한 점.

보호자들이 생전 돌보지도 않다가 간섭함. 치매환자라고 판단되어도 보호자들이 부모님이 치매라고 인정을 안함. 노인분들의 고집도 세고, 귀중품 보관 문제들도 있음.

3. 치매환자 관련 (특별하게 초점 맞춰서 하는 법)

**있음. 5등급별로 특별히 치매 전문 교육받아서 시험보고 이수증 나오면 그런 환자분들만 따로 관리함.**

4. 요양보호사 한 분 당 몇명 관리하시는지.. 몇일에 한번씩 얼마나 있으신지..

거의 평균 주 5~6회정도 들어가고, 요양사분들이 평균적으로 1사람하는 사람도 많지만 3명정도가 적정함.

5. 만약 저희 어플로 추후 케어에 대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냐?

**5-1) 업무가 끝난 후에도 케어 관리 (복약, 식사지도)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약지도는 요양사들이 다 알아서 함.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약 먹었는지 헷갈려 가지고 많이 드셔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양사분께서 아침에 방문 요양 가신다고 하면 그냥 아침에 오셔서 약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해서 복약 지도함. 가기전에 저녁에 먹을 거 따로 표시하고 문제는 날짜를 붙여 놓고 가기전에 잘 알려줘도 노인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심. 먹으신 것도 기억 못하시고 그러나 이걸 어플 화한다고 해도 노인분들이 사용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할 수가 없을 것임)

* (질문) 노인분들이 음성으로 대답하면 데이터화해서 체크해도 어려운지?

어려울 것. 보호자와 요양사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함. 근데 약 꺼내 놓고 날짜를 기억 못하고 못 읽으시니까 안 먹었다 할 수도 있고 다른 날짜의 약을 먹기도하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임. (어플이 있으면 좋긴 해도 큰 효과는….ㅠㅠ)

만약 어플을 한다고 하면 잘 깨어 있는지 감시쪽으로가 더 나을 것 같음.

5-2) 특정행동 감지 안내 관리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것도 괜찮으나 이미 119와 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음. 독거노인, 치매나 특별 관리대상 환자들의 경우 설치해서 감지함. (다는 안해주고 위험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 특별한 사람들만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하면 괜찮을 수도,,,

6. 방문요양 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불편한점?

없음. 이미 들어가면서 태그 찍는 게 나와있음. (들어가고 나오면서 태그로 찍고 쓰는 거 다 마련되어 있음 - 첨단임,,,,,) 요양사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걸 못 쫓아와서 따로 교육도 시킴.

<추가 의견>

근데 요즘에는 집에 cctv를 다 달아 놔서 스마트폰으로 보호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음.

요양보호사 들어가고 나가고 뭐하는지 중요한 장소에 다 달아 놨음..

그래서 요양사분들이 들어가면 벌써 벨이 울림 ( 보호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 그런 집도 있음,,,,

여담이나 자녀들이 좀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거 되게 잘해 놓음. 🡪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도 이런 거 되어있을 정도